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월 28일(주일) 제1477호



사진은 2024 목회사관학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되는 목회자!”

‘2024 목회사관학교’, 전임 175명, 파트 152명 참석  
찬양과 예배, 강의와 소그룹 나눔, 기도회 등 이어져

2024 목회사관학교에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로 굳게 다짐했다. 2024 목회사관학교가 지난 1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강원도 오크밸리 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막 올랐다. 온누리교회 전임 목회자 175명, 파트 목회자 152명이 참석했다.

2024 목회사관학교에서는 찬양과 예배, 강의와 소그룹 나눔, 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이 이

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 폐회예배, 박종길 목사 개회예배, 강부호 목사 기도회를 인도했다. 그레고리 웨이브라이트(Gregory L. Waybright) 목사, 줄리어스 김 목사, 한철호 선교사는 ‘다시 중심 잡기’, ‘좋은 목자로서의 목회자’, ‘복음전도자로서의 목회자’, ‘세계선교와 로잔운동’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행 11:19-26)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은 복음

이 필요한 새로운 대상들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며, 다른 증인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길탁 목사(호치민온누리교회)는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 동료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목회사관학교에서 충전한 영적 힘을 가지고 호치민으로 돌아가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조현 전도사(양재 꿈땅)는 “목회사관학교

에서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과 가치관을 알게 되어 뜻깊었다”면서 “목회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도들을 세우는 선한 목자, 복음을 잃지 않고 잘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2월 말부터 10월까지 총 6개반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예수제자학교(JDS)에서는 총 6개 반(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 부천 주간반, 수원 저녁반)이 개강한다. 서빙고와 부천 주간반 2월 29일(목), 양재 주간반 2월 27일(화), 서빙고와 양재 저녁반 2월 24일(토), 수원 저녁반 3월 2일(토) 개강한다.

예수제자학교 주간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 저녁반은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입학신청서(교역자 확인 필수), 추천서(교역자, 교사, 직장 상사, 은사, 지인 등 추천자 직접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사진 2매와 함께 2월 18일(일)까지 각 캠퍼스 본당 로비에 마련되는 안내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70만 원(전도여행비 별도).

문의는 QR 코드에서 확인.



### 온누리M미션, 이주민을 위한 설 집회 ‘Grace together’

이주민과 함께 새해 첫 명절을 보낸다.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설 집회 ‘Grace together(함께하는 은혜)’가 막 오른다. 2월 9일(금)부터 15일(목)까지 온누리M미션 각 예배별로 행사가 이어진다. 국가별, 언어별, 민족별로 모여 예배, 리트릿, 아웃리치 등을 한다. 몽골, 네팔,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아랍, 페르시아, 인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지에서 온 이주민 및 다문화 차세대, 대학청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주민 설 집회를 위한 후원이 필요하다. 명절선물세트, 텀블러, 간식 등 물품 후원과 후원금도 받는다.

문의: 031-491-9650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 부활절까지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 4’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가 부활절(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에는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전국 147개 교회와 5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도 262명이 헌혈을 시도했고, 150명이 완료했다(1월 24일 기준).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헌혈하기 전에 ‘온누리교회’ 또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야 생명나눔의 기적 인원으로 집계된다(한마음혈액원만 해당).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2714-02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소개하고, 이재훈 위임목사의 저서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를 선물로 보내준다.

임재웅 성도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께 받은 과분한 사랑을 보답하고 싶어서 헌혈에 참여했다”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 주일강단



박신웅 목사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기다림의 선물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출현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총 16번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모해야 할 기도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모든 인격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입니다.

##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모습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15번의 성령 충만을 기록할 때 ‘핍플레미(πνιπτε/πνευμα)’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령님이 급진적으로, 순식간에, 갑자기 역사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8장에 성령이 임할 때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도망자였고, 배반자였고,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치유의 사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임하면 순식간에 그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묵상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많은 표현 가운데 ‘플레로(πληροω)’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반을 포함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를 일곱 집사로 세우는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플레로’는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지칭합니다. 교회 리더로 세워진 스테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성령과 함께했고, 열매가 있으며, 인격적인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급진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매일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이 성령의 열매를 기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경은 이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 생각, 삶에서 성령의 향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향기와 비교할 수 없는 향기가 납니다. 미소가 있고, 밝음이 있고,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말씀과 행동 속에 성령의 함께하는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 “하늘의 언어를 사모하라!”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늘의 언어를 사모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방언을 받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일,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나타났던 언어의 변화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똑똑하고, 유명한 지식을 말하기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술에 예수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언어가 이와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 시기과 정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경쟁과 다툼 속에서 하늘의 언어가 아닌 땅의 언어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언어가 성령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나의 언어, 세상의 언어입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향한 언어는 땅의 언어입니까?, 하늘의 언어입니까? 성경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사 57:19).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열매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내게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언어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나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늘의 언어를 회복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뉘어졌지만, 성령으로 다시 언어가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공동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치유의 역사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음식과 복음이 나눠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성령강림사건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한국 교회에 부흥과 축복이라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흥의 불길을 붙이기 위해 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의 기도가 다음세대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다음세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꿈과 소망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하니까 3천 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비롯 많은 한국 교회가 함께 시리아 난민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외상으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시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뜨거워서 더 많은 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청소년들이 모이고, 어린이, 여성, 남성 성경공부 모임이 생겼습니다. 매주일 시리아 난민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때, 그 한 사람이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면 한국 교회와 열방에서 다시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꿈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다시 하늘의 언어를 사모하고, 다시 부흥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세속적 사회정의 이념을  
극복하는 길

세속적 사회정의 이념은 세상 모든 문제의 기원을 잘못된 사회체제에서 찾으려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만든 잘못된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와 사회구조가 인간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다. 신마르크스주의 이념의 기반을 제공한 안토니오 그람시는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문화가 노동자의 혁명 의지를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독교의 기반인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부르주아 문화의 근원인 교회를 파괴하고, 노동자가 문화주도권(cultural hegemony)을 잡으면 공산혁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문제의 기원을 타락한 인간 개인에게서 찾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사회정의에서 주장하는 것이니까”라며 외면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에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를 죄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죄 문제 해결과 구조적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포르노 산업은 매년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그 수익을 지속하기 위해 인신매매나 성 착취라는 구조적 죄악이 계속되어야 한다. 가족계획협회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낙태 산업이나 낙태아 신체조직의 불법 매매 조직이 연결되어 있고, 성별 정체성의 자기결정권은 제약회사와 의료산업의 수익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이미 우리 사회 속에 파리를 틀고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은 체계적인 죄악의 구조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성경과 사회정의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항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양자가 접근하는 방식이 판이하다. 사회정의 이념은 개개인을 구속하고 있는 잘못된 사회구조를 파괴하여 개인을 해방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반면, 성경은 오직 개인에 전파되는 복음과 변화된 개개인을 통해 악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기존의 도덕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 약자 최우선의 PC주의, 성 소수자의 인권이 최우선이라는 젠더주의와 결합한 사회정의 이념은 자기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힘의 전술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면 괴롭힘, 조리돌림, 위협, 압박, 굴욕주기 등이다. 이들은 상대와 토론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가 각박하고 험악해진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공격에 대해 똑같은 힘의 전술로 대응하거나 그들의 겁박에 굴복하여 입을 닫고, 세상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단절하고, 숨어 살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추천하지 않는다. 먼저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막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너무 속히 판단하거나 함부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며, 웃는 얼굴로 경청하고 차례를 지키면서 품위 있게 말해야 한다. 이는 대면 상태의 대화뿐만 아니라 SNS의 댓글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에서도 같이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들의 말에 대응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기도하며 성령님께 항상 답을 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이것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수세적으로 답을 쌓고 의사 표현을 포기하며 살아온 것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문화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사를 표현할 때는 분명한 복음적 방식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우리 문화를 형성하는 교육, 예술, 영화, 문학, 예능, 비즈니스 분야는 모두 사회정의 이념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고 수세에 몰려있는 동안 그들은 이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일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그들이 형성한 기존의 문화를 대체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추세는 지속할 것이고, 오히려 세속 문화가 교회 안으로 더 많이 들어 올 것이다. 우리가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일을 하실 것(눅 19:40)이라 말씀하셨다.

복음으로 세속 문화를 대체할 새 문화 즉, 세상에 대항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히 11:38)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영역주권과 일반은총(6)

## 일반은총의 사용명세서

신무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믿지 않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가는 노래방에서 기독교인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더라도 세상의 유행가를 부르는 노래방 문화의 포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 아닐까?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과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사회로 나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자문하는 내용일 것이다. 혹자는 “예수님을 그 상황에 대입해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 문화와 현대의 다변화한 문화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가

나 혼인잔치(마 2:8)에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공급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나라 술 문화에 대입해 보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에게 술잔치를 베푸는 행위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과 분리해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질화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은총론’은 세상살이 방향타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만의 편한 홈그라운드(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친 세상이 우리가 거할 위치임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성경 속 일부 영웅들, 또는 많은 간증에서 자랑스럽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의 세상 속 성공담이 일반화되고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1).

“일반은총은 구원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탁월한 접점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4)”이라며, “우리의 선한 행실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고 말씀하셨다. 일반은총론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마 5:45)는 말씀을 믿는 자들의 온전한 기준으로 요구하신다. 교회 내 성도끼리의 관계에 안주하는 것은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며(마 5:46-47),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일반은총을 베푸시듯, 세상 속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됨(마 5:45)을 명시하셨다. 일반은총의 목적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내임은 <베드로후서>에서도 잘 나타난다(벧후 3:7, 9). 자연과 그 모든 질서,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 문화와 예술적 창의력 등을 포함하는 일반은총(Common Grace)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일반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끝까지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은총에 대한 관점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세상과의 접점(Contact Point)의 역할이다. 그리스도인의 발길이 닿는 세상의 모든 일반은총의 영역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특별은총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야 한다.

믿는 자에게 일반은총이란 달란트(마 25:15-28)와 같은 것이다. 다양한 일반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만큼 세상과 많은 접점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고,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도모할 소명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로 인하여 세상에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더 품어야 한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대전제 앞에 어느 것도 앞설 수 없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행 10:28).

성경적 교육이란 무엇인가? 특별은총의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인의 일반은총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훈련이다. 독일의 천체물리학자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빚어내는 교육이다.

“하나님은 천문학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아라!

#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 오창화 집사의 입양과 위탁, 태아생명보호운동

2024년 온누리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A Bold Witness for Christ)이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다짐이다. 그 다짐처럼, 온누리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참 많다. <온누리신문>에서 바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 일상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들 말이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오창화 집사(한강공동체)다. 입양과 위탁, 태아생명보호운동에 앞장서며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입양과 위탁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룬 오창화 집사(왼쪽 두 번째)네 가족.

“부모는 아이의 우주”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부모로 인해 아이의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꼭 필요하다.

지난 1월 10일, 한 아이(가명 소망)가 새로운 우주를 만났다. 소망이의 새 우주가 되어 줄 부모는 미국인이다. 그들은 소망이의 부모가 되려고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다. 그들은 친생자녀로 아들 3명을 두고,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애인 아들 2명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이 소망이다.

소망이는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친생부모가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소망이는 새 부모의 품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더군다나 소망이는 유전자 이상으로 머리카락이 나지 않고, 손톱과 발톱이 거의 없는 조금 특별한 아이다. 유전자병을 앓는 아이가 한국인 가정에 입양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보육원과 위탁가정에 머물다가 미국인 부모 품에 안기게 됐다. 소망이는 3년의 기다림 끝에 “아빠가 대머리라서 아이가 자신의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라고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질 줄 아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부모를 만났다.

### ‘위탁’과 ‘입양’ 그 기쁨과 행복

오창화 집사를 바로 그곳에서 만났다. 소망이와 새 부모의 만남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오창화 집사 가정에서 마련했다. 오창화 집사 가정이 그동안 소망이를 돌본 위탁가정이기 때문이다. 오창화 집사 가정이 보육원으로 가야 할 소망이를 ‘아동 일시 위탁가정’ 프로그램 통해 위탁하면서 입양 대상 아동으

로 바꿀 수 있었다. 소망이 이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들이 보육원이 아닌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입양의 문이 열렸다.

위탁가정이란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수감, 사망, 학대 등의 이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일정 기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의 품을 제공하면서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해 겪는 불안을 최소화하고, 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료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위탁은 부모의 사랑과 가정의 품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주는 보석 같은 일이다. 아이들이 새 부모를 만나기 전에 안전한 울타리자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준다.

오창화 집사와 그의 아내 유금지 권사는 소망이에게 정말 좋은 위탁부모가 되어줬다. 매일 소망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소망이가 위탁가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할 새 부모를 위해, 또 소망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를 보여주려고 모든 시간을 기록해왔다. ‘까르르’ 웃는 소망이의 얼굴, 웅알웅알 잠꼬대하는 모습, 힘겹게 엉덩이를 들썩이며 뒤집기 성공하던 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소망이의 한국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함께 새 부모에게 전달했다.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아 든 소망이의 새 부모가 크게 감동했다.

“소망이가 저희 가정에 오기 전에 오창화 집사님 댁에 머무른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소망이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제 아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오창화 집사님과 유금지 권사님께 큰 감사사를 드

립니다. 오창화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창화 집사 가정은 입양에도 적극적이다. 위탁이 아이들에게 잠시 가정의 따스함을 전해주는 일이라면, 입양은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족을 선물하는 일이다. 오창화 집사 가정은 12년 전 가슴으로 쌍둥이 딸을 낳았다. 그토록 기다렸던 넷째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얼마 뒤 입양을 했다. 오창화 집사와 유금지 권사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사명으로 여기며 다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다. 아들 둘을 낳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난임병원에 다닐 정도였다. 그렇게 셋째 딸을 얻었고, 넷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

오창화 집사와 유금지 권사는 자녀를 잃고 나서 부모 잃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 부모를 잃고, 원가정에서 분리된 수많은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가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며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 하나님이 그들 부부에게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오랜 기도와 노력 끝에 사랑스러운 쌍둥이 딸을 입양으로 얻었다. 오창화 집사 가정은 아주 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들이 사는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다.

“저에게는 아내와 낳은 네 명의 자녀, 가슴으로 낳은 두 명의 자녀, 그리고 위탁으로 낳은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저희 가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다자녀를 양육하냐’며 놀라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명을 만드시

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입양과 위탁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기쁨과 행복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이 저희 가정과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 ‘태아생명보호운동’에도 앞장

오창화 집사는 ‘태아생명보호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게 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일 정도다.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낙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미혼모들을 돕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오창화 집사는 입양한 쌍둥이 딸들과 아이들을 위탁해서 돌보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신 24:19)는 말씀이 마음에 더 와닿았다. 친생부모가 아이들을 낙태했다더라면 이 귀한 생명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팠다. 그래서 부모들이 태아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태아생명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태아 살인인 ‘낙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로 인해서 원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태아생명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일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성도들이 직접 나서서 생명이 지켜진 아이들을 입양하고, 위탁해야 합니다. 입양과 위탁이 어려우시다면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지켜만 준다면 양육은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가 하겠다’고 강력하게 소리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입양과 위탁을 한다면 한다면, 세상과 구별될 것이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습니다!**  
대상: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제보 및 문의: 메일(hha0@onnuri.org)  
전화(02-6959-0001)

로잔 운동의 성격과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전망

# 로잔운동의 오해와 진실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설립원장, 명예교수)

로잔운동은 ‘성경적 선교운동’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로잔운동이 신사도운동, 혼합종교운동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로잔운동 및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이하제4차 로잔대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잔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 성경의 ‘완전영감론’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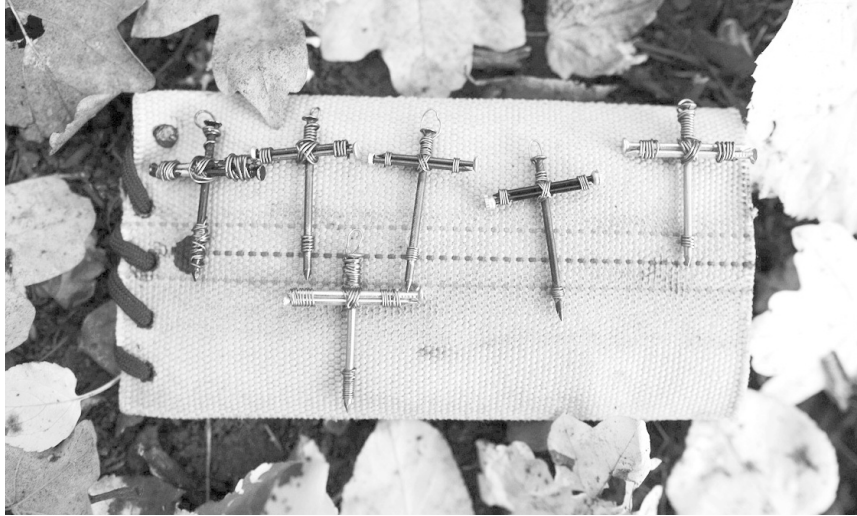
로잔운동은 성경의 ‘완전영감론’을 채택했다.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존 스토틀(John Stott),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의 정통 성경관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권위와 영감성을 회의하고, 무너뜨리면서 기독교 선교의 기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로잔운동은 성경의 ‘완전영감성(plenary inspiration)’을 천명하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편성과 대체불가성)을 천명하였다. 완전영감설이 채택되는데 프랜시스 쉐퍼의 확고한 성경관이 일조하였다.

## 신사도주의 및 종교 혼합주의 배격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이하 한상협)와 세계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이하 세이협)가 주장하는 신사도주의나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 혼합주의는 로잔운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1차, 2차, 3차 로잔대회의 공식 문건에는 그 어떤 모양의 신사도주의 사상이나 WCC 혼합주의 사상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터 와그너는 남미 선교사 출신으로 미국 풀러신학교 교수 시절이었던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에서 ‘동질집단이론(Homogeneous Unit Principle)’ 개념을 발표했다. 1989년 제2차 로잔대회에서 오순절 교회와 은사주의 교회들을 관찰하면서 ‘신사도 개혁(New Apostolic Reform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아프리카 독립 교회, 중국의 가정 교회, 남미의 오순절 교회의 성장을 선교학적으로 기술했다. 당시에 그는 선교사요, 교회성장학자로 활동할 시기였다.

피터 와그너는 이후 1990년대 신사도운동으로 넘어갔다. 그는 1993년 ‘국제추수사역회(Gloval Harvest Ministries)’라는 단체를 설립하면서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의 개념을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운동에 접목



**“우리는 로잔운동의 핵심 문서인 로잔언약(1974)과 마닐라 선언문(1989)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 이 두 문서는 성경적 복음이라는 핵심 진리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그 진리들을 여전히 절실하며 도전적인 방식으로 우리 선교 현장에 적용한다.”**

시키며 신사도운동에 신학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때부터 로잔운동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운동으로 넘어간 것은 1990년대로, 1974년 제1차 로잔대회가 끝난 지 20년이 지난 후이며, 1989년 제2차 로잔대회가 끝난 후다.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운동으로 넘어가 신사도신학을 전개한 것은 제1차, 2차 로잔대회가 끝난 후인 1990년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WEA와 제후, 가톨릭, 정교회, WCC와는 비판적 협력

로잔운동이 제후하고 있는 세계복음주의 연맹(WEA)은 세계교회협의회(WCC)보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조직체다. WEA는 1846년부터 태동해 1912년 창립된 전 세계 4억2천만 복음주의자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교회 연합체다. 현재 미복음주의협의회(NAE), 유럽복음주의연맹(EEA),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 등이 가맹되어 있다. 128개국 교회 연합체와 100개의 국제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세계 연합체가 WCC라면,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복음주의 진영의 세계 최대 연합체가 WEA다.

로잔운동은 3차 대회까지 WEA와 제후하여 대회를 추진해 왔다. 회원들도 중복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서는 별세하신 조동진, 조종남, 김선도, 김익환, 이종윤 목사가 참여했다. 그리고 현재 김명혁, 김상복, 강승삼,

한정국 목사, 필자도 WEA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상복 목사는 WEA 회장(2008~2012년)을 역임했고, 필자도 AEA 신학위원장(2008~2016년)으로 섬긴 적이 있다.

“2010 케이프타운 제3차 로잔대회에 WCC 관계자 1천여 명이 초청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세계선교의 협력자로 소수를 초청한 것에 불과하다. 마닐라 선언은 ‘B. 온 교회(The Whole Church), 9. 전도의 협력(Cooperating in Evangelism)’ 항에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세계교회협의회(WCC)와의 신학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성경적 진리가 손상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비판적 협력 제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성서 번역, 현안의 신학적 윤리적 문제들, 그리고 사회사업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연구와 같이 성서적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적절한 영역에서는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전도할 때는 성서적 복음에 대한 같은 태도의 헌신이 요청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싶다.”

## 신복음주의 선호

로잔운동의 창시자 빌리 그래함은 신학적으로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ism)를 선호했다. 신복음주의는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 흐름에 대응해 사도적 복음을 현실에 적용하고, 새롭게 활성화하자는 신학적 운동이었다.

신복음주의는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성의 근거 위에서 기독교 선교를 현실 세상에 연

결시키고자 하는 복음의 새로운 해석 운동이다. 당시 성경에 충실한 복음주의자들이 현실과 유리한 자기 독선의 아집에 빠진 신근본주의(neo-fundamentalism)의 전투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음을 새로운 사조(진화론, 유신진화론, 뉴에이지 사상 등)에 관련해서 자유주의신학(성경에 대한 고등비평, 해방신학, 사신론 등)에 대항해 참신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운동이 신복음주의 운동이었다.

신복음주의를 제창한 풀러신학교와 골든 콘웰신학교의 초대 학장을 역임한 보스턴 소재 파크스트리트교회(Parkstreet Church) 담임목사 해롤드 오펜가(Harold Ockenga)는 1940년 초 시작된 미국 신복음주의 운동의 성격과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은 근본주의의 모든 정통주의를 포용하지만, 근본주의 운동에서 상당히 결여되었던 사회적 의식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은 개인 구원, 교회적 진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인종, 전쟁, 계급투쟁, 알코올 중독, 청소년 범죄, 부도덕, 그리고 민족적 제국주의와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다. ...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책임도 포기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칼 헨리(Carl F. Henry)는 신복음주의의 대표자이다. 그의 대표적 저서로는 <신, 계시, 권위>(God, Revelation and Authority)라는 6권으로 된 대작이 있다. 칼 헨리는 1970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그의 활동 후반기에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신학교와 교회에서 강의했다. 또한 필자가 숭실대 재직시절 초청해 1987년 제1회 숭실대 기독교 문화와 신학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오늘날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 Today)에 관하여 주제 강연을 했다.

로잔운동의 창시자 빌리 그래함이 복음 전파를 강조했다면, 존 스토틀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1974년 로잔언약은 이 둘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불가분의 짝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1989년 제2차 로잔대회 마닐라 선언은 주제를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로 정하고,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 복음으로 재확인하였다. 2010년 케이프타운 서약은 서문에서 1차 로잔언약과 2차 마닐라 선언의 기본정신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천명하였다.

“우리는 로잔운동의 핵심 문서인 로잔언약(1974)과 마닐라 선언문(1989)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 이 두 문서는 성경적 복음이라는 핵심 진리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그 진리들을 여전히 절실하며 도전적인 방식으로 우리 선교 현장에 적용한다.”

(계속)

CGN 전진국 신임 대표와 함께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천 원으로 미디어 선교사”

선교미디어 CGN 제5대 대표로 전진국 집사가 취임했다. 전 집사는 1985년 KBS 공채 11기 PD로 입사했다. 콘텐츠본부 예능국장, 창원총국장, 편성본부장, KBS 아트비전 사장을 거쳐 KBS 부사장을 역임했다. KBS 재직 시절 ‘가요톱10’, ‘사랑의 리퀘스트’, ‘열린음악회’ 등 내로라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연출한 탁월한 전문가다. 그런 그가 CGN 대표로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변화를 끌어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CGN 전진국 신임 대표를 직접 만나 CGN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CGN 대표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CGN 후원자님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CGN 제5대 대표로 섬기게 된 전진국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보태서 CGN이 또 한 번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CGN이 또 한 번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대표님이 꿈꾸는 CGN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CGN의 모태는 CGNTV입니다. 그동안 CGN은 위성 안테나부터, IPTV, 케이블 방송, 인터넷 셋톱박스 ‘드림온플러스’, 유튜브, 기독교 OTT ‘풍당’(이하 ‘풍당’)까지 미디어 변화에 따른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향후 다른 플랫폼이 나오더라도 변화와 도전을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CGN의 지경을 넓히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선교미디어가 되기를 꿈꿉니다. 2024년에는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는 데 CGN 플랫폼들이 활용되도록 세밀히 정비하고, 비기독교인도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이를 위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CGN과 함께 미디어 선교사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GN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기대됩니다. 벌써 참신하게 준비한 새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2년 동안 기획하고 취재한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종상 선교사와 배우 차인표 집사가 이스라엘, 그



리스, 튀르키예, 이탈리아, 몰타, 키프로스 등 6개국을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과 여정을 따라간 이야기입니다. ‘풍당’ 론칭 3주년을 맞아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2월 15일(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바울로부터’의 극장판 영화도 제작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에는 ‘제4차 서울 로잔대회’가 열리는데, CGN은 주관 방송사로서 중계는 물론이고, 여러 후속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가 지난 1월 8일부터 방영을 시작했고, 올해 연말까지 방송됩니다. 이 외에도 로잔대회의 의미와 한국 교회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도 준비 중입니다. 각계각층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취재하고, 철학과 신앙을 보여주는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기독교인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회적 이슈나 관심사를 기독교적 통찰력으로 명쾌하게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변화된 전도 환경에 발맞춰 복음을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영역을 넓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CGN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궁극적으로 CGN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믿음이 생기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자문단’입니다. 현업 및 퇴직 PD, AI, 영화 분야 전문가를 조직해서 같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자문단’입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협력해서 2030 세대의 이야기를 다룰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작가 자문단’입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롭게 추가해야 할 부분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할 것

입니다. 이외에도 ‘제안 공모전’을 열어 대내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심사를 거쳐 신규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순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CGN의 후원 시스템도 강화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CGN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시청자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CGN 후원자가 약 4만 5천 명인데, 그중 56%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GN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CGN 후원자가 되어 미디어 선교사로 함께 하기를 바라봅니다. 단돈 천 원도 좋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이 모여서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KBS 재직 시절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모금 프로그램을 제작해 어린이재단과 협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에 천원으로 18년 동안 총 874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사람이 동참한다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비전을 상세히 공유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차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성인, 교회 리더십 등을 직접 찾아가 CGN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미디어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방안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CGN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네. 그중에 한국 기독교 최초로 도전한 ‘풍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론칭 3년이

다 되어가면서 ‘풍당’이 꾸준히 성장하며 잘 정착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풍당’의 콘텐츠가 34,823개나 됩니다(24년 1월 25일 기준). 기독교 콘텐츠 아카이브 역할을 하고 있고, 기독교 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지역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육 플랫폼으로 ‘풍당’을 사용하는 교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풍당’을 활용하며 함께 하도록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나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등을 통해 활용법과 장점을 나눌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용자들의 반응을 잘 살피고 기술도 더욱 고도화해서 추천 시스템, 검색 기능 등이 향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할 것입니다. CGN은 이와 같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안에 ‘풍당’의 글로벌 버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영어 버전을 시작으로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6개 해외지사에서도 현지 맞춤형으로 제작한 콘텐츠도 ‘풍당’에 업로드하며 현지인을 위한 복음 플랫폼으로 더욱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제2회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를 이틀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AI를 활용한 실제적인 미디어 선교 방법을 중점적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OTT뿐만 아니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를 활용한 복음 전파에도 힘쓸 것입니다. 현재 CGN 유튜브 채널 가입자가 69만 5천 명입니다. 올해 7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유튜브에서 CGN 콘텐츠를 더 잘 활용하도록 멀티 플랫폼 전략으로 콘텐츠 도달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청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높여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CGN 후원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CGN은 하용조 목사님의 ‘Acts 29’ 비전을 따라 19년 전 창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성장해왔습니다. CGN이 지지치 않고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GN이 전 세계 복음화 통로가 되도록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천 원 이상의 후원으로 미디어 선교사가 되어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리며 CGN이 끝까지 돕겠습니다.”

2024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 2. 이주민 선교

# 이주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 만들기!

## 이 시대 또 다른 사명, 이주민 품고, 찾아가는 교회

2024년에도 온누리교회 선교는 ‘난민 선교’와 ‘이주민 선교’에 집중한다. 특히 한국을 찾아오는 이주민이 점점 증가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안산M센터 노규석 목사가 대한민국 이주민의 변화와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 비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주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에서 이주민 형제가 세례를 받고 있다.

최근 뉴스에 ‘합계출산율 0.7명’, ‘지방소멸 시대’, ‘인구절벽과 국가위기’와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국내 인구문제를 외국인 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이주민 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에 따라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의 소멸과 지역 교회 초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내 선교에도 선교사들의 고령화와 은퇴, 비자발적 철수에 따른 대안적 선교로 이주민 선교가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7년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 2019년 252만 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198만 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 250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앞으로 2026년 300만, 2040년 이전에 500만 이주민 시대가 올 것이다. 현재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따라 이주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직장 동료, 학생, 이웃, 가족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시대의 변화와 이주민 급증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제는 고민할 이유도, 시간도 없다. 이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시대가기 때문이다.

### 이주민 선교의 변화

2016년 9월, 온누리교회는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M(migrants)선교사 제도를 만들고, 이주민 선교 현장에 파송했다. 해외 선교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를 M선교사로 임명해서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 재배치한 것이다. 현재 M선교사 27명이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 아홉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에서도 귀국한 선교사들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주민 교회 및 단체와 협력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주민 단체 및 지역 교회에서도 귀국 선교사들과 지역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는 이주민 선교훈련을 개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대국제선교회의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 4P)와 온누리교회의 이주민 선교학교가 있다.

21세기 국내 이주민의 증가 추세는 한국 교회의 목회와 세계 선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난 30년 한국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는 특수 선교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단일 민족주의적 교회론을 넘어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의 안디옥 교회로 변화하는 만큼의 큰 도전이다.

미국에서는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이 등장해서 지역 교회에 선교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 교회도 미국의 선교적 교회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기독교가 주류 종교인 단일 종교사회로 변화했다가 이민자들에 의해 다종교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역 교회의 선교적 자각이 일어났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다종교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선교적 존재로 몸부림쳐 왔고, 21세기 급속한 세계화와 이주 현상에 의해 처음으로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론으로 다문화 사회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상황과 토양이 달라서 한국에 맞는 새로운 선교적 교회론이 필요하다. 국내 지역 교회들이 한국인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만민의 기도하는 집’(막 11:17)으로써 교회론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주민들을 지역 교회 안으로 품어야 한다.

### 이주민 선교의 비전과 방향

2011년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온누리교회 2기 위임목사로 취임하면서 모자이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온누리교회가 한국인 중심에서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의 ‘모자이크 선교 교회’로 변화하겠다는 비전이었다. 이 교회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주민을 교회 안에서 품고, 교회가 이주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국내에 약 5만7천 개 지역 교회가 있는데, 이주민 교회와 단체가 1천 여개 밖에 없다. 1.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주로 서울과 경기권, 부산과 경남권에 집중되어 있다.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로 예배 드리는 지역 교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기존의 지역 교회들도 이주민들을 환영해주고, 지역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이주민의 종교실태 조사’에 의하면, 이주민 중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한 이들이 8%였다. 이를 추산해 보면,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 명 중에서 2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이주민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 인원이 평균적으로 3~40여 명 정도이고, 1천여 개의 이주민교회가 있기에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이주민이 약 3~4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설문에 응답한 이주민 상당수가 불교권, 사회주의권 국가 출신인데, 종교 호감도 1위 불교(53%), 2위 기독교(38%)라는 점이다. 특히 무종교 이주민 중에서 약 45%가 앞으로 믿고 싶은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전도 받은 경험이 29%에 불과했고, 71%가 전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주민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계기는 가족이나 이주민의 전도(71%), 평소 아는 한국인을 통해서(18%)였다. 약 88%가 친분을 통한 전도였다. 종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영역은 자국민 사귀(59%), 한국어 교육(26%) 등의 순이었다. 긍정적인 부분은 가

장 많은 이주민이 자신들에게 애정을 갖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국내 이주민들은 크리스천들과 교회에 마음이 열려있다.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주민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과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노동력 확보와 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을 한국에 데리고 온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통계상의 숫자나 인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고, 한 인격이다. 그들이 낯선 땅인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살도록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더 붙어 살아가려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2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025년에는 약 1만 5천 명의 다문화 장병이 우리나라를 지킬 것이다.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역 교회가 한국어 교육과 정서적 돌봄, 지지그룹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지역 교회가 다문화 자녀들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그 가정도 품을 수 있다.

온누리M센터에서는 안산을 포함해서 전국 9곳에서 매주 15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40개 예배공동체에서 약 1천 명의 이주민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데, 그중에 120여 명은 다문화 자녀다. 매주 20여 명의 이주민이 교회를 방문하고, 매년 3~40명이 세례를 받는다. 외국인 신학생들과 다문화 대학생들에게 매 학기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선교, 다문화 교육선교를 넘어서 다문화 군선교와 다국어 상담선교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홍익인간(弘益人間), 곧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귀한 민족정신이 있다. <창세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하셨다. 더 많은 성도가 이주민 선교에 참여해서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한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민족 중심의 통일한국(統一韓國)을 넘어서 ‘더 큰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꿈꿔야 한다. 아시아를 품고, 경영하며,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국가 비전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을 찾아온 이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다. 이주민들이 우리의 친구와 가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더 큰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이루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

노규석 목사  
(안산M센터)

맛있는 말씀 해설

##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벧전 4:16)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공통적인 일이 있다. 바로 고난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목회와 상담을 하면서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물론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도 삶의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고 평안한 게 아니다.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감당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성도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첫째, ‘고난 중에 불평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 혹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다. 둘째,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다.

<베드로전서> 4장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기원후 약 60년대의 배경을 가

지고 있다. 당시 네로황제나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박해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는 게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기독교인’은 그리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면서 고난을 겪게 되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부끄러운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벧전 4:15).

우리는 쉽게 고난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우리의 실수로 겪는 고

난인지 구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라고 말씀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벧전 4:14).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벧전 4:13).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주신다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서 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무조건 삶이 파괴되거나 나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무엇이 진정으로 귀중하고, 값진 삶인지를 깨닫는다고 한다. 적당한 고통은 변화의 촉매제가 된

다고 한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겪고 나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새로운 진리와 기쁨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딱 한 가지만 지키면 기쁨의 역설을 맞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역설적인 기쁨과 은혜도 가득 주신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만이 이 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1월 29일~2월 4일  
<마가복음> 10:17~12:12



아무리 많은 재물도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땅의 삶이 잠시뿐임을 아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며, 낮아지는 삶을 선택한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대신 치르는 몸값)로 내어 주는 섬김으로 그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지 묵상하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재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인자가 맞이할 고난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며,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신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친다.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말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

**묵상포인트 2:**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실상에 분노하시며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믿음과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제자들은 나귀 위에 겹옷을 엮고, 무리도 겹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친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시장하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셨다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 앉으신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 다음 날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며, 기도할 때 먼저 남을 용서하라고 교훈하신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시하는 위선자들이었다. 교만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 아들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를 묵상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에 분개해 권위의 출처를 묻는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를 반문하셔서 그들을 잠잠하게 만드신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깨우치신다. 포도원을 세우고 타국에 간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 종들을 보낸다.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다. 이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해 실행하지 못한다.

###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영생을 소망하기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이 세상의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복음을 우선시하는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자. ▶가정, 교회,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실천하자. ▶바디매오처럼 내가 예수님께 외쳐 부르며 구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자. ▶기도응답의 비결은 ‘믿음’과 ‘용서’다. 믿음의 간구에 앞서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 살펴보자. ▶하나님과 관계를 좁히는 탐욕과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는 지난해 5월 암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체중을 30kg 정도 감량하면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올해 5월에는 다시 일해야 하는데,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치유되어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지난해 수술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지금 복용하는 약이 몸에 잘 흡수되어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다시 입원하지 않고, 지금까지 치료에 잘 이워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5월에 직장에 복귀하는 게 맞을지, 이직하는 게 맞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저를 간호해주는 가족들도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도록,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설동훈 성도(평택온누리교회)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 먼저 사랑하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 굳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와 맞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평생을 같이 살아온 가족과도 안 맞을 때가 많은데, 세상에 나와 꼭 맞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 신앙의 관계에서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예제르(뚝는 배필)’를 만나도 동상이몽의 일상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물론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일까?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까? 결국 우리는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와 찰떡같이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맞는 것 같은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단점이 보이고, 맞지 않는 점이 보이기 마련이다. 상황과 감정, 미세한 컨디션의 변화에도 천차만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무한히 넓은 세계에서 내가 허용하고, 통제가 가능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허물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다.”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하고,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몰아갈 뿐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계 맺음의 핵심은 ‘먼저 사랑하라’였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일 4:19).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형체로 낮아지신 하나님이었다.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배려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성육신(incarnation)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인가? 모

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않다. 수많은 리스트를 세우고, 그 기준에 통과한 사람을 만났을 때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먼저 잘 맞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허물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림과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

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혈어 내셨고”(엡 2:13~14).



최대홍 목사  
(요셉청년부)

##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 결혼만족도와 U자형 곡선

부부가 결혼 생활에 가장 만족하는 시기는 당연히 신혼기다. 신혼기를 보내는 신랑과 신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독신의 시간을 보낸 끝에 만난 자신의 또 다른 반쪽이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는가? 그런데 신혼의 행복과 만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만족도가 내려가게 되고, 신혼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곤 한다.

결혼만족도에는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게 작용한다. 결혼 생활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감정과 배우자 또는 가족에 대한 행복감이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양육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두 사람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들게 된다. 자녀는 부부에게 큰 축복임이 틀림없지만,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함께 따라온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결혼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U자형 곡선을 그리게 된다고 한다. 신혼 때에 가장 행복하고,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하향 곡선을 그리며 내려간다는 것이다. U자형 곡선, 결혼만족도의 가장 저점에 자녀의 성장과 독립이 있다. 자녀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도록 키운 이후 부부는 다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된다. 가정의 범주 안에 부부만 따로 독립된 환경을 갖게 되면서 다소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부부마다 상황이 다를 것

이다.

U자형 곡선인 결혼만족의 최저점이 자녀의 성장과 독립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부부도 있겠지만, 자신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결혼의 최저점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결혼 관계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부부들은 결혼만족감이 바닥에 있을지라도 결국 다시 상승한다.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시점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 안에 서먹해진 부부 관계가 급격하게 회복되는 것은 어쩌면 이상적인 기대일 수 있다. 긴 시간과 긴 호흡이 필요할 수 있다. 오랜 인내와 서로를 향한 관계 회복의 기대가 필요하다.

결혼만족도가 U자형 곡선이 아니라 하향 곡선 형태로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향 곡선을 회복하고 이전의 행복한 수준의 결혼 만족을 누리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부부들도 있겠지만, 지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며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무관심이 커지는 부부도 있다. 서로에 대한 간극이 점점 커지고,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는 부부도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했지만, 부부가 관계 개선을 할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자녀들이 품을 떠나 독립한 이후 남겨진 어색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왔던 날들이 중요하다. 부부가 어떻게 함께 살아왔고,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왔다면 결혼만족도

가 가장 바닥인 상황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반대 상황이라면 결혼만족도가 가장 바닥인 지점에서 회복할 힘이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결혼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결혼 생활에 따라오는 크고 작은 역할 또는 난관을 부부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부부는 최소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 한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라고 고함치는 부부도 있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부부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된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서로의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미 서로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시간을 두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만족도가 U자형 곡선을 그리면서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무시당했다고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편해지면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자신은 늘 배우자를 존중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배우자를 존중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존중하는 태도와 말로 배우자를 대하는지 혹시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자녀 양육 문제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심하게 갈등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좋다.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는 배우자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자녀 양육은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서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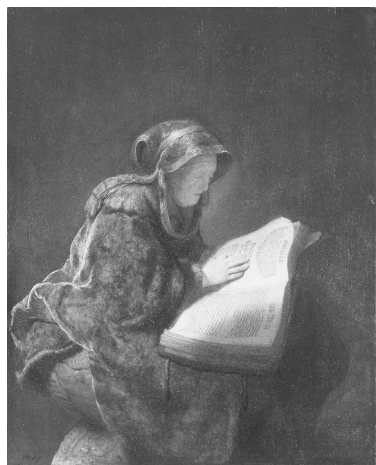
반대로 자녀 양육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굽힐 뜻이 없다면 부부 관계는 부정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에 균열이 가게 된다. 균열이 고착된 부부가 결혼 만족의 가장 저점에 도달하면 다시 올라갈 동력이 없다. U자형 곡선이 아니라 하향 곡선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도 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존중, 신뢰와 사랑을 쌓아야 한다. 모든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상승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 새로운 마음가짐

〈렘브란트〉책을 읽는 예언자 안나와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

음악 QR

새해가 되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 나는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찾아보았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소장한 〈독서하  
는 노파, 아마도 예언자 안나, 1631〉를 본다.  
미술관 홈페이지에는 이 작품에 대해 ‘그녀는

성경에 따르면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 늙은 과부 안나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렘브란트의 어머니가 이 그림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라고 쓰여 있  
다. 작품 속 주인공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 〈누가복음〉에 언급되어 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  
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  
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  
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  
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눅 2:36-38).

성경 속 장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이야기  
다. 밤낮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메시아의 오심에 감사했다는 것이다.

그림을 보자. 렘브란트는 성전을 떠나지 않  
고 밤낮없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안  
나를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모습으로 그렸다. 성

경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묵상을 한다는 바로  
그 부분에서 안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  
으로 데려왔을 때 안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즉시 알아봤음을 렘브란트가 표현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빛의 화가답게 렘브  
란트 특유의 강력하고 섬세한 빛이 여인의 뒤  
쪽에서 들어와 안나가 읽고 있는 성경과 성경  
위의 그녀의 주름진 손을 비추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렘브란트가 그녀  
의 주름진 손과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의 글귀를 주름 가득한  
손으로 한 줄 한 줄 더듬으며 읽어 내려가는  
듯한 이 장면은 그 어떤 성화보다 경건하고,  
그 어떤 성인의 모습보다 깊은 감동을 준다.

렘브란트는 그의 어머니를 모델로 신심이  
깊은 안나를 표현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존  
경과 사랑도 함께 나타냈다. 안나의 경건한 삶  
과 깊은 영성은 영혼의 눈을 밝혀 그토록 기다  
렸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  
아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겸  
손히 하루하루를 밝혀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의 모습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을 사는 것이 새해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가  
지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크시대 베네치아 작  
곡가인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2악장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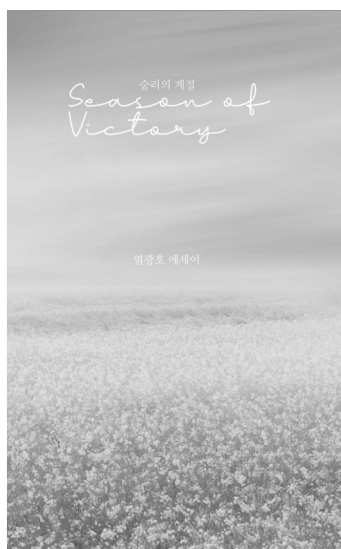
다지오’를 들어보자. 아름다운 오보에 멜로디  
에 매료되어 같은 시대의 작곡가 바흐가 건반  
악기용 협주곡으로 편곡한 것으로도 유명하  
다. 현악 합주가 숨죽이며 흐르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듯 아름다운 오보에 선율이  
퍼져 나간다. 오보에는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  
에 튜닝(tuning, 조율)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A음(보통 440Hz)을 부는 악기다. 모든 악기를  
제치고 오보에가 그 기준이 되는 이유는 주위  
환경이 변해도 음정의 변화가 크게 나지 않는  
안정적인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  
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같지 않은가? 현악 반주 위로 흐르는 오보  
에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선율은 렘브란트 그  
림 속 안나에게 비추는 빛이요, 우리 삶의 기  
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보에의 맑은  
선율은 그림 속 안나가 주름진 손으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짚  
어가며 살짝 입을 벌  
려 말씀을 읽는 나지  
막한 음성이다. 묵상  
을 통해 하나님의 음  
성을 듣고, 매일 매  
일 하나님의 뜻에 따  
르는 나날들로 올해  
를 채워가기를 소망  
한다.

최정주 권사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 두란노 신간

오늘의 hymn  
(찬송가, 찬가)

## 그 답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계절〉  
염광호 저 | 펍스로열 | 14,900원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봄처럼  
따뜻한 혹은 겨울처럼 때스운  
계절을 만날 때가 있다. 우리는  
그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승리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승리의  
계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  
의 저자 염광호는 배우, 작가, 가  
수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면  
서 만난 사람들에게 배우고 느  
낀 점을 꿈, 화목, 지혜, 사랑을  
주제로 노래했다.

“어떤 성공이나 돈, 명성에 대  
해 논하려고 이 글을 쓴 게 아니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하  
고 싶었다.”

이 책에는 학생, 주부, 기업인,  
강사, 교수, 작가, 화가, 정치인,  
농민, 음악가, 목사, 경찰, 선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한다. 또 결  
혼, 재혼, 가정, 양육, 사업, 목회, 국제스포츠 및 국제경제 행사 유치, 통  
일, 정치, 국가대혁신, 2050동북아평화체제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  
다. 인생의 계절을 승리의 계절로 만들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  
천한다.

##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록워십 곡

는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한다.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  
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  
게 하소서”(시 70:4).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  
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모  
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  
기를 소망한다.



찬양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 과도한 옷 소비를 멈춰라!

패션과 환경 오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문제를 KBS 다큐멘터리 ‘환  
경스페셜’에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를 주제로 다뤘다.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  
면, 대한민국은 헌 옷 수출국 세계 5위  
다. 국내에서 수거되는 헌 옷 중에서 단  
5%만 국내 유통되고, 나머지 95%는 수  
출된다고 한다. 수출되는 옷은 재활용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된 것들이 많아서 대  
부분 소각된다.

렌트더런웨이(Rent the Runway, 미국  
의류렌탈 서비스 업체)에서 의류 산업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1인당 연간 옷 구매  
량이 68개였다. 그렇다고 구매한 옷을  
모두 입는 것은 아니다. 한 번도 입지 않  
고 버려지는 옷이 12%나 된다. 매년 생  
산되는 옷이 1천억 개 이상이고, 같은 해  
버려지는 옷이 330억 개다. 버려지는 옷  
들은 땅속에 묻히거나 태워진다. 옷을 폐  
기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유독  
가스가 뿜어져 나온다. 전 세계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전 세계 항공기  
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더 많다. 탄소중립  
을 위해서는 과도한 옷 소비를 멈춰야  
한다.



사진은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청춘 클래스' 현장.

##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

‘청춘클래스’ 3월 16일과 23일 오후 1시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이 궁금한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강의가 열린다. ‘청춘클래스 7기’가 오는 3월 16일(토)과 23일(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3월 21일(목)에는 온라인 레크리에이션을 한다.

청춘클래스 7기에서는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크리스천의 연애 노하우’, 개그맨 오지현, 박상

미 부부 ‘크리스천의 행복한 이성 교제’를 주제로 강의한다. 온라인 레크리에이션은 개그맨 조래훈이 진행한다.

청춘클래스 7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1월 27일(토)부터 2월 18일(주일)까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cafe.naver.com/youthclass)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60명(남녀 각각 30명)을 모집한다. 회비

는 7만 원이다.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청춘클래스에서는 크리스천의 연애와 소통, 배우자, 결혼 등을 주제로 실질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청년부와 행가래팀이 공동 주최한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1월 세레자

#### ■서빙고

고봉섭 900910  
기현주 730411  
김남희 031120  
김도경 930303  
김정미 710620  
김종국 610525  
류수진 700809  
박문희 810913  
신정현 870322  
심상진 650212  
황희정 660410

#### 유아

김 준 220924  
김교현 박재인  
김민재 220102  
김인태 임수진  
김이든 220321  
김진형 홍지나  
김이온 220906  
김태세 이한제  
김이준 220225  
김상우 심효문

#### ■J4U

박윤찬 230818  
박용근 정예지  
심재하 200124  
심형섭 백성은  
유지안 200921  
유승준 서정은  
이서안 230102  
이정수 임사랑  
장하준 221208  
장우식 최희정

#### ■양재

이윤규 720505  
조미정 731112  
입교  
신예랑 990721  
황유빈 020820

황유정 981026  
황유진 070506

#### 유아

김나우 211031  
김문규 김성은  
김아윤 220905  
김성인 최시내  
박이든 221012  
박준우 이호정  
장태리 230310  
장유진 최승연  
장태리 220922  
장유성 김문정

#### <대학청년>

#### ■여호수아

송윤지 970811  
위지원 931007  
유경훈 861204  
입교  
손하은 950826

#### ■J4U

이다슬 910627  
입교  
유재호 911106

#### ■SNS

김영노 901025  
입교

이슬기 911109

#### 유아

장아린 221201  
장종우 김해지

#### ■W

김명인 871025

## NGO 더멋진세상, 우크라이나 주민 2천 명에게 방한용품 지원

NGO더멋진세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지역 주민 2천 명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NGO더멋진세상은 우크라이나 이반카우 시장과 복지부 담당자와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조사했고, 대상자로 극빈층 노약자 2천 명을 선정해 방한용품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우크라이나 이반카우 지역은 우크

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부터 큰 피해가 있었는데 아직 복구되지 못한 곳이다. 특히 난방시설과 발전소가 폐쇄돼 전기와 난방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 이반카우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의: 02-2271-224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 수집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발간 편찬위원회’에서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한다. 1985년 교회 창립부터 1993년까지 주보, 사진, 양육자료, 행정 기록(예배 인원 보고 등), 간증집 등을 보관하고 있는 성도들

은 서빙고온누리교회 행정지원실(김경렬 간사)에 가져다주거나 <온누리신문>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자료를 스캔한 다음 원본 그대로 돌려준다.

문의: 02-6959-0001(온누리신문)

## 36기 일일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36기 일일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1월 30일(화) 오전 10시부터 모집한다.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크리스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회비는 26만 원.

36기 일일 결혼예비학교는 3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임항재 목사, 이주호 강사, 김숙경 소장이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차세대

## 2024 패션집회 ‘Acts, Now’

1차 2월 15~17일, 2차 2월 18~20일

2024 차세대 파워웨이브 패션집회가 ‘Acts, Now’를 주제로 막 오른다. 1차 2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2차 2월 18일(주일)부터 20일(화)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진행된다.

1차 패션집회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원, 부천, 대전, 세종캠퍼스, 2차 패션집회에는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인천, 영종, 강동, 평택, 남양주, 양지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참여한다. 2024 패션집회 ‘Acts, Now’에서는 김지연 선교사와 노규석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 서빙고 꿈아이놀이터 교사 모집

차세대를 말씀으로 키우는 ‘서빙고 꿈아이놀이터’ 교사를 모집한다.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운영, 자료 제작 등의 달란트를 가진 성도가 대상이다. 꿈아이놀이터 교사 모임 및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층 꿈아이홀에서 한다.

‘꿈아이놀이터’는 24~40개월의 영유아가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오감 놀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나도록 돕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8877-3584

## 입양 홍보 마라톤 행사’ 참가자 모집

제이흠, 4월 27일 마라톤 대회 및 홍보 부스 운영

온누리교회 입양가족 모임 ‘제이흠’에서 ‘제1회 제이흠 입양 홍보 마라톤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사는 4월 27일(토) 안양천에서 막오른다. 안양천에서 열리는 ‘양천 마라톤 대회’를 통해 입양 가족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양을 홍보한다는 취지다. 입양 및 위탁, 입양 홍보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제이흠 입양 홍보 마라톤 행사에

는 마라톤대회 참가나 홍보부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이흠 입양 홍보 마라톤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이름, 공동체, 연락처, 참가 희망 파트(마라톤 또는 홍보부스)’를 문자메시지(010-2002-1007)로 보내면 된다.

마라톤대회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생년월일, 티셔츠 사이즈(85~110)도 함께 보내야 한다. 마라톤대회 참가비는 1만 5천 원이다.

## 131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3월 2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

131기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3월 20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5만 원.

131기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4월 10일은 휴강한다.

문의: 02-2182-9114

##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

2월 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강의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가 2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성경적 성가치관 훈련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가 대상이다. 수강료는 3만 원이다. 2월 1일(목)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수업 시작 전에 교재를 구입해야 한다.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경의롭게 만드신 하나님’,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등을 주제로 이진아 대표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5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간증



/ 권남철 장로(평택온누리교회)

##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나눠준 기도카드를 작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40일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 덕분에 기도의 지경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과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나고도 나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태복음> 4장 19~20절에서 어부 출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됐다.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리스도께 담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 ■ 예수제자학교(JDS) 졸업생 간증



/ 박정화 성도(가정사역공동체)

## 예수님의 참 제자

지난 3년 너머의 시간 동안 철학같이 암울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으로 예수제자학교(JDS, 이하 JDS)에 참석했다. 그렇게 시작한 JDS에서 천사 같은 간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지상 천국을 맛봤다.

지난 3년 동안 죽지 못해 겨우 연명했다면, JDS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참 평안과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SUM 강의 두 번째 시간, 춤을 배우는 그 시간이 내게는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몸을 푸는 율동마저 나에게 너무 어려웠고, 결국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다. 나에게 죽을 만큼 힘든 게 춤이었다. 그럼에도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디서든지 SUM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간사님들과 팀원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아웃리치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의 아웃리치 참석을 위해서 팀원 전체가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릴레이 금식기도를 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었고, 항상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나는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았고, 아웃리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가지 못할 거라고 염려하고 절망했었는데 합심해서 올려드린 기도 덕분에 입사 1개월이 안 된 신입사원이 회사의 허락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웃리치와 방학을 끝내고 JDS는 다시 개강했다. 제자의 날을 보내는 기간 동안 내 일상엔 온통 간사 콜링 메시지였다.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처럼 남들의 발을 씻기라는 섬김의 은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을 바라봤더니 간사 콜링에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주셔서 결국 간사 콜링을 받아들였다. 더욱 겸손하고 정직한 자세로 ‘작은예수’로 살기로 다짐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줄 굳게 믿는다. 나는 아직도 한참 부족하지만, JDS 간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구한다.

##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권오현 성도(이촌공동체)

## 새로워진 마음!

온누리교회 첫 순예배를 드렸던 때가 기억난다. 큐티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초신자였는데, 열떨결에 부순장을 맡았다. 순장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순장님 덕분에 교회에 빠르게 정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순장학교 강의를 들을 때마다 과거 순장님의 헌신과 섬김이 예사일이 아니었구나 싶었다.

순예배가 나에게 신앙의 기초를 닦아줬다. 그 이후 온누리교회에서 순장, 예수제자학교(JDS) 간사, 큐티나눔방장, 여성 사역자로 섬기다 개척교회로 갔다. 개척교회는 온전한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헌신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얼마 전 동부이촌동으로 이사를 왔다. 오랫동안 떠나있던 서빙고온누리교회로 돌아와 순장학교에 참석했다. 매주 강의를 들으며 마음이 새로워졌다.

사실 다른 일로 바빴던 때라 순장학교 과정이 부담이었다. 부담감으로 시작했지만 얻는 게 많았다.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을 들으면서 온누리교회의 다섯 가지 영성이 섬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장은 순원들과 담당목

사님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웠다. 성령수련회에서는 잔잔한 감동으로 기도했다.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다. 영등포 광야교회에서의 노숙자 간식 나눔은 처음 해보는 사역이었다. 노숙자들은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표정이 맑았다. 우리의 작은 섬김에 감사하고, 목사님 설교에 크게 ‘아멘’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절로 ‘아멘’이 나왔다.

‘전도하는 순’에 이어 ‘선교하는 순’ 강의를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배웠다. ‘선교하는 순’ 강의에서 목사님이 “교회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나에게 적용했다.

“성도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순장학교 큐티나눔 과제를 하면서 게을리 하던 큐티를 다시 시작했다. 큐티와 더불어 분주하게 살아오느라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다.

## ■ 세례 간증



/ 심상진 성도(이촌공동체)

##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는 서빙고온누리교회를 다니다가 이사하면서 교회를 떠나있었다.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할머니 때부터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셨다. 당연히 나도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스스로 절을 찾아가 불공을 드리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늬만 불교 신자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다. 사회에서 만난 친밀한 형님이 담관암으로 돌아가셨다. 또 다른 지인들은 혈액암 등으로 지금도 힘든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큰 아들이 속을 썩여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교회에 한번 가볼래?”라고 말했다. 그 순간 고민을 엄청했다.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교회를 간다고? 내가 듣기로는 기독교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

아내는 몇 달 동안 내 기분을 살피며 계속 권유했다. 그런데 갑자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내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주신 것 같

다. 그때가 2022년 7월 말이었다.

나는 매년 휴가를 8월 1일부터 보냈다. 그런데 그해는 8월 1일부터 새벽기도회를 가기로 했다. 우리는 집 근처 교회로 새벽기도회를 갔는데 너무 어둡고, 사람이 없어서 썰렁했다. 다음날 아내가 “서빙고온누리교회에 한번 가볼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8월 2일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를 갔다. 그리고 그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을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15개월째 새벽기도회를 다니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큰아들도 함께 새벽기도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다. 벌써 두 번째 성경통독을 시작했다. 많이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장로칼럼

가정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



주수일 장로  
(진새골온누리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두 가지다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정적인 성공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진다고 착각하고 산다.

남자들에게 사회적 성공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생에서 돈, 명예, 권력, 그 무엇도 가정을 희생하고 얻어야 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가정적으로 실패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벌여 놓은 돈과 명예를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기쁨을 같이 나눌 가족이 없고, 돈을 같이 쓸 사람도 없으니 그렇게 힘들어서 이뤄놓은 사회적인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가정적인 성공없는 사회적 성공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가정적으로는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업에서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동기생들은 모두 승진했는데 자기만 누락됐다. 그래서 실망하고 집에 돌아와 “망할 놈의 세상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알아주지도 않는 회사 때려치워야지!”라고 푸념했다. 그때 가정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라면 아내가 이렇게 위로할 것이다.

“여보!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먹고는 살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항상 잘 되라는 법이 있나요? 당신은 대기만성형이니가 다시 도전해 보세요. 당신 입사 동기들이 모두 승진했다면 다음에는 당신 차례 아니에요? 기다려

봅시다.”

또 자식들은 “아버지 힘내세요! 저희는 아르바이트해서라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위로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새로운 힘을 얻고, 다음날 밝은 얼굴로 출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장은 입사 동기들을 모두 승진시켜 놓고 이 친구만 빼놓은 게 찝찝했는데 이 친구가 의연하게 출근한 것을 보면서 ‘어? 이 친구 그래도 속이 깊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틀림없이 승진을 시키게 될 것이다. 이 일로 사장에게 잘 보인 이 사람은 그다음에는 다른 동기들보다 승진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가정적으로 성공했다면 사회적 실패는 일시적인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가정생활보다 사회생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산다.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과 사회에서 장관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장관이 되는 것이 훨씬 큰 특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장관이 못돼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아버지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이 사회에 준비되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가득하다. 이로 인해 가정생활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물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사회적인 성공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렇게 큰 성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생존을 유지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궁상맞지 않게 살 정도의 성공만 있으면 된다. 인생의 행복이 사회적인 성공과 꼭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은 인생의 수단이고, 가정적인 성공은 인생의 목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예수의 불꽃을 심었더니...



이성재, 유한나 선교사  
(멕시코)

저희는 2014년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5년 동안 사역하고, 캠퍼스 사역이 전혀 없었던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개척해 달라는 부르심을 받고 2018년 12월 이곳에 왔습니다. 2019년부터 코스타리카 산호세 지역의 코스타리카대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천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학생은 우리 모임에 꾸준히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성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그가 저에게 쪽지를 한 장 건넸는데 “나를 발견해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쪽지를 미국 단기선교팀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실한 크리스천 여학생입니다. 대학교에 올라오기 전에 교회 선배들을 통해서 “대학교에 가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1학년 때는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며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왔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은 혼

자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캠퍼스로 돌아간다면 혼자만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하고 새 학기 대면 수업에 왔다가 개강 첫날 저를 만났습니다. 저와 교제하며 우리 공동체에 연결되었습니다. 고학년이고, 건축학과라 많은 시간을 저희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순예배에 충실했고, 우리와 마음을 나눴습니다. 올해 초 저희가 ‘Journey Together’를 주제로 코스타리카 첫 학생 수련회를 했는데, 이 학생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학생 수련회 이후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을 함께 연결하고, 성장시키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혼자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부부가 코스타리카 5년 사역을 끝으로 멕시코의 메리다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럼 누가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오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다른 한국인 선교사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를 대신해 현지 간사 세 명이 세워졌고, 그들이 이 사역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연결돼 성장한 학생 세 명이 간사로 헌신했습니다. 세 개 국립대학교를 한 명씩 맡아서 사역하게 되었고, 우리 도움 없이 새로운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받았던 비전이 제 인생을 바꾼 것처럼, 그 비전이 이제는 그들의 비전이 되어 캠퍼스와 학생 사역에 대한 확신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불꽃을 심었더니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리더십이 된 그들이 어떤 영적 운동을 일으켜 나갈지 기대됩니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과천의왕공동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40일간 예배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은혜받은 말씀이 있어 나누고자 한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며 잔치를 벌이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만아들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

참된 영성

아버지가 말하는 복이란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이고,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이 삶을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나는 이 아버지의 대답에서 참된 영성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참된 영성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원인인 결핍과 부족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분의 원대한 신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수 된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겠는가?

반면에 율법의 준수에 목을 매고, 그에 따른 명예와 보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종교생활의 표상이다. 영성이 깊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면 나 중심, 남에게 보여주는, 성과 위주의 삶을 살게 된다. 혹시 은연중

에 자신의 신앙이 종교 생활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위임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려주신 예화가 생각난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앞으로 목회할 때 새신자 강조하지 말고, 차세대 우선하지 말고, 땅끝 이야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곳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로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0.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교회가 죽게 된다. 종교 생활을 하면 삶에 만족이 없고, 결코 새신자가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음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전수하지 못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는 깊은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서 경쟁과 물질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일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장로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자적: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온누리교회 장로로 65세 이하  
문의: 박일면 총무(010-3708-5781)

**더멋진세상 모집공고**  
모집: 경영지원실 행정· 회계 1명  
자적: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및 문서 독해 능력, 컴퓨터 기본 활용 및 문서 작성 능력(MS 엑셀 필수)  
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서류: 입사지원서  
접수: 1월 28일까지 이메일 (duna30@abetterworld.or.kr) 제출  
문의: duna30@abetterworld.or.kr, 070-4402-3023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어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양재 꿈아이놀이터 교사 모집**  
대상: 24~40개월 영유아  
기간: 2월~11월  
모임 및 예배: 매주 토 9:00~14:00  
장소: 양재 선교관 1층 사이닝홀  
모집: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사회 활동자료 제작 등  
문의: 신주용 전도사(010-3918-8223)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월 1일~15일 15:00까지  
문의: 02-570-7192  
www.ttu.ac.kr에서 초빙 공고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 사도행전 2024

1974  
스위스 로잔1989  
필리핀 마닐라2010  
남아공 케이프타운2024  
대한민국 서울

제 4차 로잔대회 본문 '사도행전'을  
함께 선교적 관점으로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방송시간 : 7시 50분, 11시 40분, 22시 10분

월~금 CGN과 풍당에서 시청하세요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풍당 다운로드

